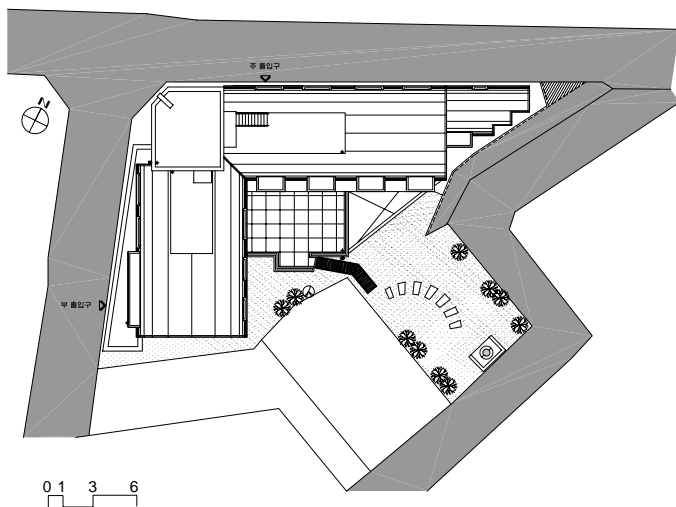


마리아의 작은자매회 수녀원

Little Company of Mary

● 배치도

● 건축개요



- 대지위치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44번지
- 지역지구 2종 일반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
-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수녀원)
- 대지면적 372,35㎡
- 건축면적 220,54㎡
- 연면적 870,54㎡
- 건폐율 59,23%
- 용적률 169,15%
- 규모 지하1층, 지상3층
-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 내부마감 수성페인트, 벽지
- 외부마감 적벽돌 치장 쌓기, ZINC
- 설계담당 이우홍, 최무규
- 구조설계 (주) 동우구조
- 설비설계 (주) 동우설비
- 전기설계 (주) 대화기술사
- 시공사 정문종합건설(주)
- 설계기간 2004. 1 ~ 2004. 5
- 공사기간 2004. 6 ~ 2005. 3
- 사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 Location Huam-dong 44, Youngsan-gu Seoul, Korea
- Site area 372,35㎡
- Bldg. area 220,54㎡
- Gross floor area 870,54㎡
- Bldg. coverage ratio 59,23%
- Gross floor ratio 169,15%
- Structure R,C
- Bldg. Scale one story below ground,
three stories above ground
- Design period 2004. 1 ~ 2004. 5
- Construction period 2004. 6 ~ 2005. 3



1. 동네 속에 자리 잡은 수녀원 전경
2. 골목에서 보는 남쪽 전경





인연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수녀원으로부터 계획안을 의뢰받고, 대지를 방문하고선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 대지에 놓여있던 오래된 가정집 같은 수녀원은, 18년전 설계사무소 초년 시절 아침마다 버스를 타기 위해 올라야 했던 남산 기슭 언덕길에서 매일 보아왔던 그곳이 아니던가 허름했지만 고만 고만 작고 소박한 주변 건물들 속에 단아하게 자리잡아, 항상 나의 눈길을 잡았던 그 가정집 같은 수녀원들의 숙소였던 것이다. 그렇게 '그'와의 인연이

달았다.

이별

'그'는 낡아서 일부 지붕이 내려 앉아 수명을 다 한 듯 했지만, 호상이라 하면서도 노 부모를 보내는 자식들의 허전한 마음처럼 놓아버리고 싶지 않은 건물이었다. 그 만큼 수녀님들, 이웃들과 사십여년 동안 그들의 역사를 함께하며 정이 들 만큼 들었던 가족과 같은 '그'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수녀님들, 이웃, 후원자, 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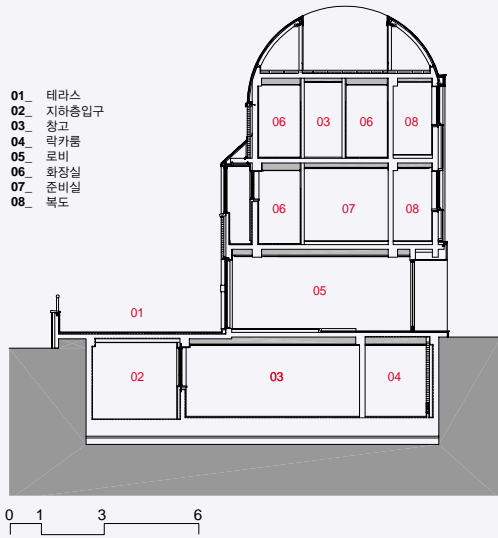
은 새 건물을 맞이하는 것 보다는 정들었던 '그'와 헤어지는 것이 더 어렵고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와의 '이별식'을 하기로 했다. 호스피스 일을 하는 수녀님들이라서, 매번 정들었던 말기 암 환자들을 보내며 체험한 '잘 헤어짐'의 필요성을 알았기 때문일까. 매정하게 늙은 '그'의 손을 놓기보다는 서로의 감정을 교환하고 정리해서 잘 헤어져야만 새로운 식구를 가족으로 맞이할 수 있음을 모두가 마음으로 이해했다. '그'의 물 구석구석을 어루만지며 우리는 담소하고 노래하고 음식을 나누었다. 그렇게 '그'와 헤어지는 자리는 푸근하고 따스했다.

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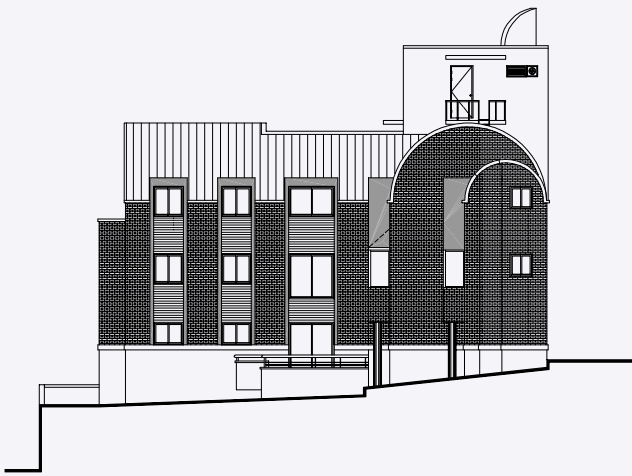
그래도 새식구를 맞이하기는 힘들었다. 새로 태어나는 '아기'에게서 이전의 '그'와 같은 푸근함과 따스함을 바라는 수녀님들을 어떻게 다 만족시킬 수 있을까. '아기'를 탄생시키는 동안 조심조심 몸 조심해야하는 이웃들도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자주 불만을 토로한다. 그렇게 해서 태어나는 아기는 아무래도 피가 섞이고 다른 모습으로 보일 수 밖에 없는 진리인 것을.., 다름을 인정하고 부딪히며 살아야 하는 것을.., 그렇지만 피는 속일 수 없다고 하지 않는가? '가뭇'도 이어지는 것이 아니던가? '태생'이 아주 다른 '돌연변이'는 나오기는 어렵다. 이웃의 작은 몸집에 맞추어 덩어리를 나누어 주었다. 안으로 들어와서도 작은 단위(unit)를 규칙적으로 배열했다. 이웃들이 자신을 못 알아보고 쫓아내지 않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그들을 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곳이 또한 수녀원이란 곳이다. 이별식에서 어려해 전 도둑과 대치했던 수녀님의 고백속에 아직도 그 두려움과 떨림을 느낄 수 있어서라기 보다는 수도자라는 특성상 속세와 떨어져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오래전부터 역사적으로 이어져 왔던 '감추기'도 남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외부에서 담장과 방범창, 둥근 지붕등으로 수녀원을 감추긴

- 01_ 테라스
- 02_ 지하층입구
- 03_ 창고
- 04_ 락카룸
- 05_ 로비
- 06_ 화장실
- 07_ 준비실
- 08_ 복도



단면도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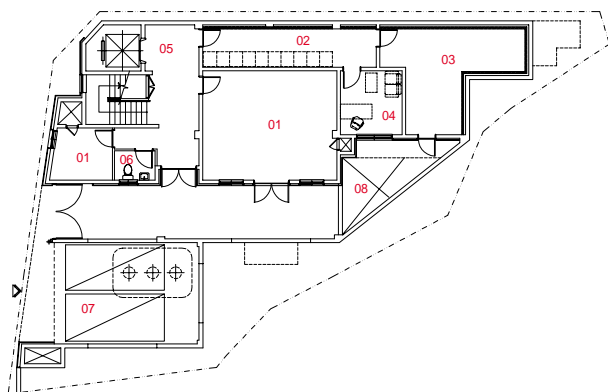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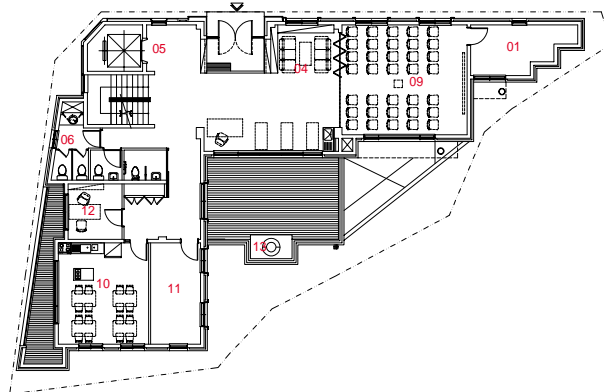
- | | |
|---|--------------------------------|
| 1 | 1. 선근 테라스와 정원의 연결 |
| 2 | 2. 남산이 보이는 전경 |
| 3 | 3. 개별공간의 표현 (정원에서 바라봄) |
| 4 | 4. 거리면서도 열리고 싶은 공간 (지붕-다목적 마당) |



- | | | | |
|---|---|---|---|
| 1 | 2 | 3 | 4 |
|---|---|---|---|
1. 옛집의 흔적
 2. 청빈의 최소 공간 (수녀침실)
 3. 기도실 (소박함과 단순함)
 4. 정숙함과 단결 (수녀침실 앞 복도)



지하층 평면도



1층 평면도



하였지만, 내부에서는 속세를 향한 수녀님들의 마음은 활짝 열려있다.

함께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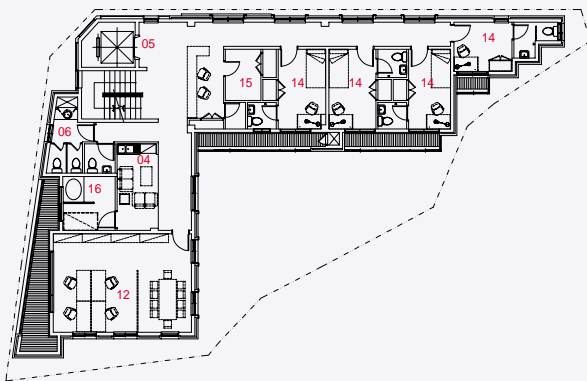
그렇게 이을배반 같은 수녀원과 수녀님들처럼 그 '아기'와 같은 건물도 이웃과 어울리기가 어려웠다. 큰 덩치로 골목에 있어야 하

고 뻘안 얼굴로 찌든 모습과 대처해야 한다. 나... 난 그 '아기'를 잘 달래는 것이 가장 큰 임무였다. 깨끗이 목욕시켜서 좋은 옷 입혀서 부잣집 아기 같이 크고 빛나는 모습보다는 건강하게 그을리고 장난쳐서 흙 묻은 옷을 걸치고 동네 친구들과 잘 어울려 노는 어린이로 만들어가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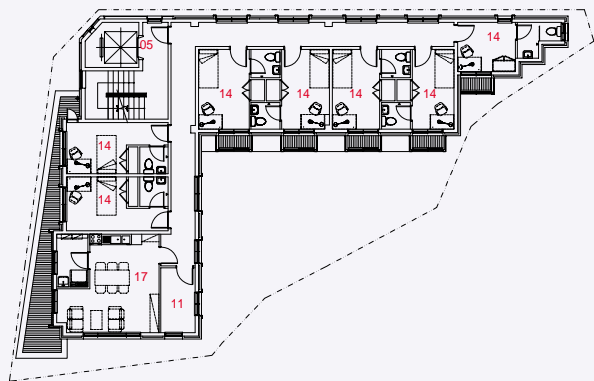
그렇게 해서 이웃건물들과 함께 살아 갈 수 있을 때 그 건물은 생명을 얻어 그 자리에 정착하게 되는 것이다.

풍부한 건축적 공간과 어휘가 부족한 건물을 내 놓는 건축가의 노파심을 이해 바라면서 정리해 보았다. ㉮

- 01_ 창고
- 02_ 유희실
- 03_ 세탁실
- 04_ 휴게실
- 05_ ELEV.홀
- 06_ 화장실
- 07_ 주차장
- 08_ 선반
- 09_ 소성당
- 10_ 식당
- 11_ 기도실
- 12_ 상담실(수녀원집무실)
- 13_ 성모상
- 14_ 수녀원
- 15_ 준비실
- 16_ 욕실
- 17_ 공동방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